

기획

강의평가 낮은 실효성, 교수 교육 제도화로 해결 꾀한다

강의평가 피드백 개선 방안 점검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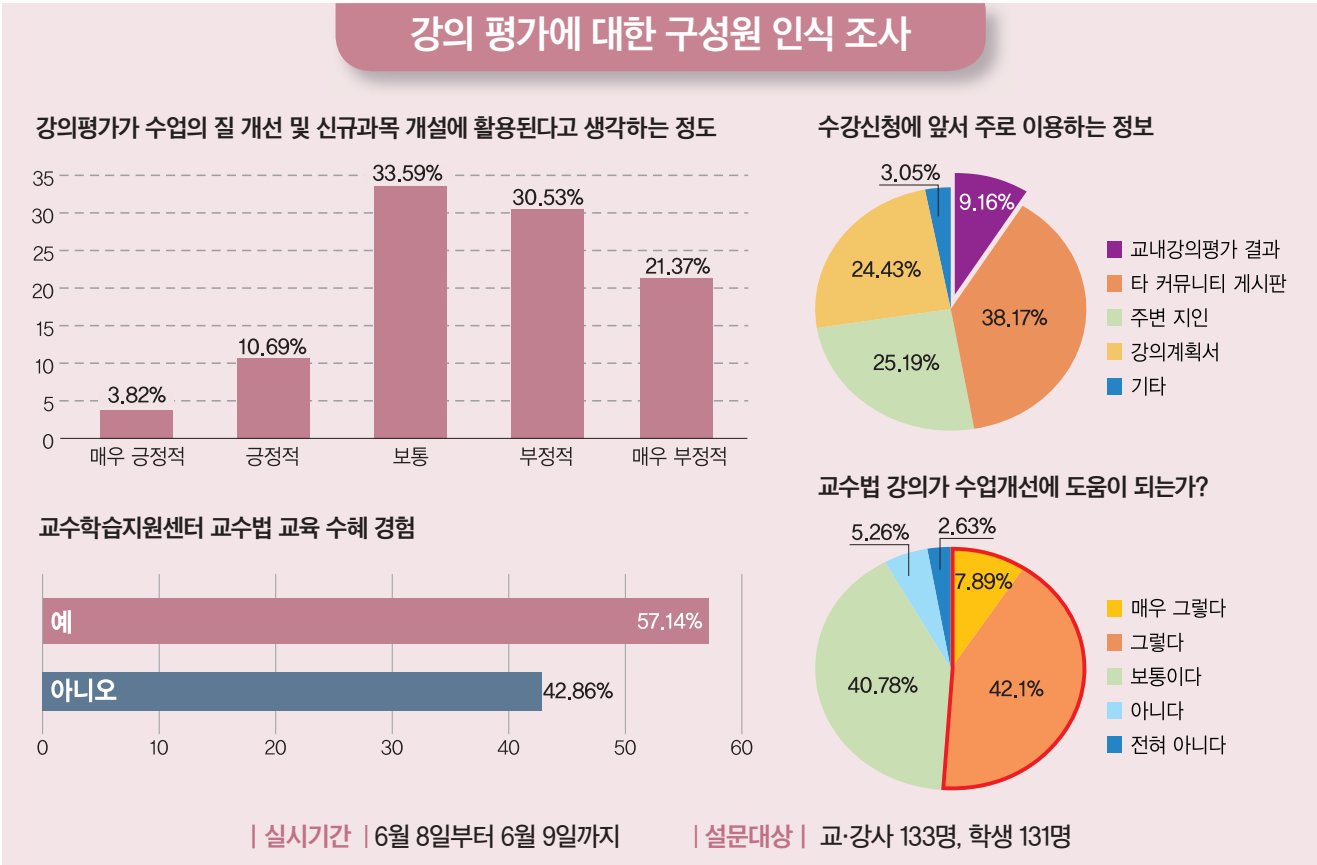
이제는 익숙해진 매 학기 말 강의평가가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1년의 세월 동안 강의평가는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평가 도입, 강의평가결과와 공개, 수시강의평가 도입과 폐지 등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매 학기 강의평가는 약 8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매년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학생과 교·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강의평가에 대한 인식’에 관해 물었다. 결과, 응답한 학생의 ‘93.13%’가 현 강의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강사 역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르는 조치의 방향성’을 묻는 주관식 문항 답변을 통해 평가 문항의 구성, 불이익 위주의 조치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의평가 어떻게 운영될까?

교무처 측에선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래 도입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한 학내 구성원과 본부 차원의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향후 개편 논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강의평가는 모든 강좌가 동일하게 ▲내용의 체계성 ▲평가의 공정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묻는 8개의 객관식 필수 문항과 수업의 장·단점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개방형 선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추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성적조치기간을 차등한다. 이번 학기의 경우 전체 학생은 7월 3일부터 7월 5일 사이 성적조치가 가능하다. 강의평가를 실시한 학생은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보다 먼저 성적조치를 할 수 있다.

구성원이 지적하는 해결과제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강사들의 ▲수업



지속 여부 ▲기준과목 폐지 ▲수강신청 시 참고자료 ▲우수교수 선정 ▲교수업적평가항목에 반영되는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행 강의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 활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30.25%), 매우 부정적(20.17%)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긍정적(4.2%), 긍정적(10.92%)이라고 대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 역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 교무과 조종구 계장은 “강의평가를 통한 피드백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 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무처는 교·강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2014학년도에 ‘수시강의평가’를 도입한 바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15학년도에 폐지됐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은 학생과 교·강사 모두가 문제로 꼽았다. ‘교내 강의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의 49.58%가 ‘불성실한 응답’을 꼽았고, 교·강사 역시 주관식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성의 없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 동국대는 2013년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학생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객관식 문항을 24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주관식 문항을 기존 1문항에서 2문항으로 늘렸다. 또한 ‘교원 선택가능 문항’을 12개에서 3개로 축소해 총 문항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했다. 전임교원에는 무력한 강의평가? 강의평가 결과가 시간강사와 전임교수의 처우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전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는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8조(위촉제한)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강의평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평가의 결과를 ‘교수업적평가’ 300점 만점 중 ‘강의평가항목(40점)’으로 반영할 뿐이다. 국제캠 교무과 김병균 과장은 “전임교수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는 교수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로 제재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강의평가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수가 강의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학생 ‘결과에 따른 처우’에 집중 교원 ‘인사권보다 문항개선’ 학생들은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제도(34.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강의평가 결과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적절한 상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강사 측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강의평가 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하되,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에게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을 남겼다. 전임교원 측에선 인센티브 없이 불이익만 존재하는 현재 평가결과 반영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강의평가에 대한 조치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일방적인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기보다 수업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강사들은 문항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내쫓았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

다’, ‘교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문항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방안

교무처 측에선 강의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법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선 이미 ‘워크숍’, ‘수업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들에 대한 강제사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교무처 측에선 이와 연계해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사지원과 김경희 부처장은 “강의평가의 평균점수가 일정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현재 검토 중이다”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엔 교수업적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설문에 응한 교·강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 중 ‘그 내용이 실제 수업 개선에 도움됐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7.89%)’, ‘그렇다(42.1%)’라는 긍정적 응답이 ‘전혀 아니다(2.63%)’, ‘아니다(5.26%)’라는 부정적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도 ‘교수학습방법개선연수 필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측도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에 대한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유상용 계장은 “교무처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강의평가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교원들의 입장에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학생, 교·강사, 그리고 학교 측에선 강의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도입을 준비 중인 교수법 이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나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문항개편에 있어서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소통을 통해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중앙도서관 연중기획 '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9회 『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앙도서관에서는 경희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노트 습관화하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월) ~ 11. 5.(일)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략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양식: 홈페이지 로그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발표

- 수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상상

- 최우수상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12명(상품권 5만원)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 중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환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청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십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결과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